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⑮ 세 권의 책

스님이 내게 一讀 권한 책들

법정 스님께서 내게 권하는 책은 3권이었다. 첫 번째의 책은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법정 스님께서 '영혼의 모음' 이란 제목으로 어린 왕자에게 띄우는 편지를 쓰셨을 정도로 가까이하셨던 책이었다. 스님은 〈어린 왕자〉를 스무 번도 더 읽어 책장을 훌훌 넘기기만 해도 그 세계가 넘어다보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전에는 어린 왕자가 여섯 개의 별나라 여행을 통해서 현대인의 비인간화를 고발한 동화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내재율의 울림이 큰 철학적인 장시(長詩)라는 느낌이 문득 들었다. 프랑스 생텍쥐페리 재단의 후원을 받아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 열고 있는 '어린 왕자 특별전' 을 다녀와서 그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어쨌든 어린 왕자는 지구별로 돌아와 사막에서 만난 여우에게 '내 비밀을 알려줄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재동자



일러스트 · 정윤경

의 구도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서사구조이다. 아래 글은 법정 스님이 어린 왕자에게 띄우는 편지글 일부이다.

'그저 괜히 창문을 열 때가 있다. 밤하늘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인다. 방울처럼 울려올 네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혼자서 웃음을 머금는다. 이런 나를 곁에서 이상히 여긴다면, 네가 가르쳐준 대로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난 언제든지 웃음이 나네." (중략)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샘물이 고여 있어서 그렇듯이.'

두 번째 책은 문명을 버리고 자연으로 귀의한 소로우의 〈숲속의 생〉. 일본어판을 소장하고 계시던 스님께서 어느 날 내게 샘터사에서 출판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셨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숲속의 생〉을 발간해보라고 당부하셨다. 일본어판을 번역하는 책이므로 중역(重譯)인 셈. 그런데 중역이 얼마나 위험한 번역인지 그때 알았다. 이호중 화가의 표지화를 받아 정성들여 편집했지만 내용이 문제였다. 영역판과 차이가 났고 독자의 항의편지가 날아왔다. 부끄러웠다. 그래서 편집회의를 한 끝에 절판시켰다.

세 번째는 민족사학자 신채호의 민족혼을 일깨우는 〈신채호전집〉. 어느 날 스님께서 내게 그 〈신채호전집〉을 미국여행 가는 지묵 스님에게 주어버렸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지묵 스님에게 "어머니가 문둥이여도 버려서는 안 되듯이, 내 나라가 아무리 썩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십여 년 뒤 〈신채호평전〉을 구해 읽었는데, 선생이 이순신 전기를 한말의 민족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나도 〈이순신의 7년〉이란 대하소설을 집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강의평가 공개 원칙… 교수법 개발 투자도"

Interview | 이준원 금강대 제6대 총장

"금강대가 15년간 추구해온 인재상은 대학교육의 모범사례입니다. 소수정예, 그리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어느 대학보다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최근 학교가 시끄러웠던 건 개교 이후 몸집은 커졌지만 시스템이 과거에 머물렀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강대는 사람으로 치면 골격을 갖추는 청소년기입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과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때입니다."

천태종립 금강대 신임총장에 이준원 前공주시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금강대는 10월 30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92차 이사회를 열고, 이준원(53 · 사진) 前공주시장을 제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4년간.

이준원 총장의 취임은 '막말파문' 과 '독단적 운영 논란' 을 빚은 한광수 前총장의 사퇴 이후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기에 어느 때보다 눈길을 끈다. 새로 취임한 이 총장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신뢰가 무너진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화합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본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가장 먼저 이 총장은 금강대가 개교 이후 슬로건으로 내세운 '소수정예교육' 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의 장학금 지원과 소수정예교육으로 학생들이 부처님 정신을 갖고 사회 각 분야에 자리를 틀어 자비심을 베풀어나가도록 돕는 건 모범적인 대학운영 사례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근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바람에 가치가 퇴색된 느낌도 든다. 초심으로 돌아가 개교 30주년을 준비할 만큼 탄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1~2년 단위로 학제가 바뀌어온 금강대 운영방식에 우려를 표하면서 "총장 취임 전 금강대에 대해 알아보니 짧은 기간에 학제개편이 빈번하다는 걸 알게 됐다. 학생

11월 1일부터 4년간 임기
공주시장 · 한일고교장 역임
"소수정예 슬로건 계승하며
구성원 갈등 최우선 해결"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수조차도 혼란을 겪게 돼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강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당분간 학제개편 전략보다는 15년간 느슨해진 부분을 정비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본지가 취재하며 제기한 '2016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 결과서 '효과적인 교수활동 인식' 부문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교수법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총장은 "교수 역할을 강의와 연구, 사회봉사 등 3가지로 꼽는데 현재 금강대는 강의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구조인 것 같다. 결국 강의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된다"면서 "신진학자들을 강의전담교원으로 확보하고, 전임교수들이 강의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학교 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추가한 '학부 학생만족도 설문조사' 와 관련해 모든 문항을 불만족으로 답해도 교수가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뿐만 아니라 행정운영, 연구, 강의 등 전 방위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고쳐나가겠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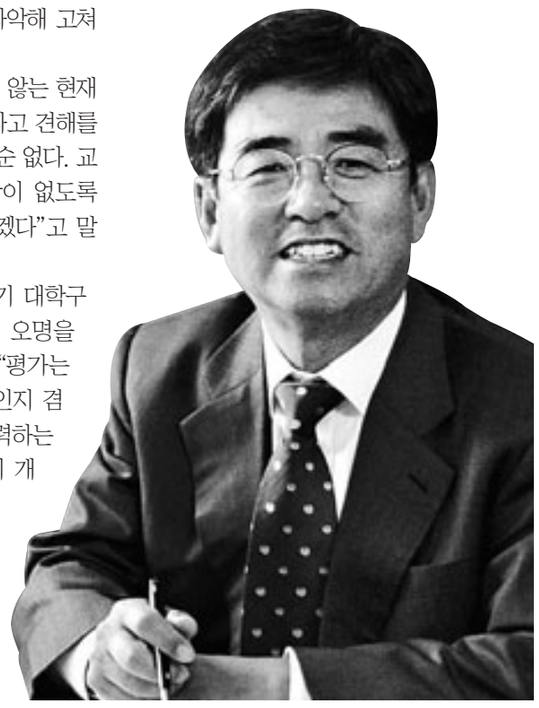
또한 강의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현재 시스템에 대해 "대원칙은 공개"라고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교수 · 전문가 토론을 거쳐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해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내년 시행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1주기 D등급의 오명을 씻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그는 "평가는 결과보다 무엇이 강점이고 단점인지 겸허히 받아들여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평가방법의 개선, 평가대상의 노력이 잘 어우러져 금강대 이미지 쇄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980년대 대학입학부터 2006년 공주시장 당선까지 대학생 · 대학원생 · 조교 · 교수 등을 거치며 교정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밝힌 이 총장은 "언젠가는 대학관리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인연이 닿아 금강대 총장으로 부임한 만큼 열정을 다해 멋진 꽃이 피도록 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준원 총장은 1987년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 · 박사를 받았다. 공주대 부교수와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공주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제6~7대 공주시장, 한일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원행 · 현호 · 일면 스님 원로의원 추천

조계종 제209회 중앙종회 정기회 개원
종정감사특위 구성 후 휴회… 8일 속개

조계종 원로회의 새 의원으로 원행(월정사) · 현호(송광사) · 일면(봉선사) 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제209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첫 안건으로 원로의원 추천의 건을 이 같이 결의했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세 스님은 종헌종법에 따라 향후 열리는 원로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원행 스님은 1970년 월정사서 희찬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과 호계원 초심호계위원, 삼화사 · 구룡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호 스님은 1960년 상백운암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송광사 · 법련사 주지를 역임했다.

일면 스님은 1964년과 1967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교육원장, 호계원장, 봉선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과 광동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앙종회는 원로의원 추천에 이어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총무분과위원장인 범해 스님을 임명했다. 또한 불기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휴회하고, 8일 속개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의사일정은 △종헌 개정의 건(멸빈자 사면 · 원로의장 임기 단축) △종법 제 · 개정의 건(원로회의법 개정안 · 사면법 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초심호계위원 선출 △법규위원 선출 △소청심사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불기2562(2018)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제8기 법계위원 위촉 동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문화재사찰 도로명칭 삭제 중지 촉구 성명서 채택 △기타사항이 진행된다.

한편 지난 8월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율원대표로 당선된 원명 스님은 교육분과위원회에 배정됐다. **윤호섭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70호 A2면 〈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재논의되나〉 기사 내용 중 봉선사 밀운 스님을 **일면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조계종 새 집행부 기획특보 우봉 스님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기획특별보좌관에 우봉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설정 스님은 10월 31일 기획특보 우봉 스님, 사서국장 원정 스님, 수행사서 혜광 스님을 임명하고 "매사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특보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1994년 수계했다. 영랑사 · 문수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과 호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서국장 원정 스님은 수암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및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수행사서 혜광 스님은 철안 스님을 은사로 1998년 수계하고 동국대를 졸업했다.

윤호섭 기자

2017년 (재)백련불교문화재단 학술대회

【 개 회 】 개회사 :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축 사 : 설정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격려사 : 향적 스님(해인사 주지)

【 제1주제 】 제 목 : 봉암사 결사의 배경과 불교사적 의미
발표자 : 이종수(순천대 사학과)

【 제2주제 】 제 목 : 해인총림 결성의 배경과 현재적 의의
– 퇴옹성철의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자 : 조기룡(동국대 불교학술원)

【 제3주제 】 제 목 : 근 · 현대불교에서 퇴옹성철의 역할과 백일법문의 위치
발표자 : 서재영(불광연구원)

【 제4주제 】 제 목 : 퇴옹성철의 선문헌 번역사업의 내용과 의의
발표자 : 박인석(동국대 불교학술원)

【 제5주제 】 제 목 : 퇴옹성철의 대중포교 내용과 불교사적 의의
발표자 : 최원섭(동국대)

【 제6주제 】 제 목 : 성철의 교외별전
– 성철의 "거짓말"에 속아야 할까, 속지 말아야 할까?
발표자 : 변희욱(서울대 철학사상연구원)

종합토론 : 최연식(동국대 사학과)

■ 일시 : 2017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경내)
■ 주관 : 백련불교문화재단

【 문의 】 백련불교문화재단 _ 02-2198-5372, 5373

봉암사결사 70주년, 해인총림 50주년 기념
퇴옹성철과
현대한국불교의 정체성

